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부가세의 20%까지 확대

지방세수 11조원대로 늘린다

행안부 '지방재정 확충안' 인수위 보고

행정안전부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 확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최고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고 있지만 올해 이 비율이 10%로 인상된다. 20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당시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안부가 내놓은 로드맵에 따라서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지방소비세수는 현행 3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회에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2015년 20%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지방소비세 비율의 조속한 인상을 건의해 왔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또 지방소비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 완전 독립세화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부과하는 부과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를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지자체에 완전히 권한을 넘기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인수위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낮추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함에 따라 연간 3조원에 가까운 지방세수 결손을 메우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편성이나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결손분을 메워주기 전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쓰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0~5세 무상보육의 핵심인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경우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이 49대 51로 정해져 있어 지방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현행보다 2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현재 유명무실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연중 운영,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 시 적정 부담수준을 사전에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간사. /연합뉴스

장남 증여세 탈루·위장 전입·기업협찬 지시 등등

커지는 이동흡 의혹들

〈헌재소장 후보자〉

이 후보자 측 적극 해명 불구 민주당 파상공세

인사 청문 절차를 앞둔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소득이 없는데도 지난해 3월 재산신고에서 4100만원을 신고, 증여세 자진 납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수원법원장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용서 한나라당 소속 수원시장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을 외면하고 법원조정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당시 고유가 문제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가 실시됐으나 이 후보자가 헌재 사무처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다른 관용차를 더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이 후보자가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시절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95년 6월 분당 정자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정자동으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기존 아파트에서 1997년 6월까지 살았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들과 함께 저술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을 공저로 표기하지 않고 단독 저서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의혹이 잇따르자 이 후보자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위장전입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두 딸의 교육문제 때문에 바로 이사할 수 없어 본인만 분당으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고 2년 뒤에야 입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집필을 도와준 연구관들과 회의한 끝에 단독 저서로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가 2005년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삼성에서 물품 협찬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협찬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독일行 손학규 "성찰의 시간 갖겠다"

6개월간 새 정치 모색할 듯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15일 독일로 출국했다.

손 상임고문은 6개월 동안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복지, 노동, 교육, 환경, 통일 정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할 계획이다. 그는 당분간 국내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새로운 정치적 비전 모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야권의 재편 과정에서 정치적 계기가 마련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손 상임고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와 중도 노선과 탈노(탈노무현) 등을 매개로 정치적 세력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손 고문은 지난 10일 자신의 싱크탱크 격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신년회에 참석, "독일에서 성찰과 모색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녁이 있는 삶'의 내용을 충실히 채우고 새 비전과 희망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손 상임고문은 아직 죽은 카드는 아니다"며 "야권의 재편 과정에서 손 상임고문의 정치적 입지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독일로 출국하기 앞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부처 1~3급 고위직 감축

대민 서비스 공무원은 늘릴 듯

인수위, 정원조정안 마련

대통령직인수위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으로 중앙부처 실·국장에 해당하는 1~3급 고위직 공무원을 감축하는 등 정원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교육·복지·경찰 분야 등 일선에서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하위 실·국의 조정은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출범 초기까지 정치적 동력이 있을 때 검토해야 한다"면서 "하위 조직 구성을 하다 보면 공무원 수 변화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선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부처는 불가피하게 조직·정원감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업무를 넘겨야 하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 와 ICT 전담조직으로 조직축소가 예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해당 부처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도 그 대상에 들어간다.

통상 정권 초기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고위공무원 감축이 따랐기 대문에 이번 인수위가 조직개편을 계기로 다른 정부부처 실·국에 대한 존폐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위직 축소가 중·하위직으로까지 확산하거나 지난 1998년 IMF위기 속에서 단행된 정부조직개편 때와 같은 구조조정 바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오히려 교육·안전·복지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의 확대로 새 정부에서는 전체 공무원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선 재검표 논란 관련

선관위, 국회서 공개 시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 공개시연을 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선 재검표(수검표) 의혹에 대해 공개 시연으로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1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지하에서 18대 대선 개표 공개시연을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시연은 3개 투표구를 대상으로 6000매를 개표한다. 이 가운데 2000매는 실제 투표용지며 개표에서 보고까지 전 과정이 실제 개표과정과 똑같이 재연된다.

공개 시연회는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에게 공개되며 인터넷 생중계도 이뤄진다. 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시중에 돌고 있는 개표 조작 음모론에 대해 의혹 해소 차원에서 산관위에 개표 공개시연을 요구했다"며 "오해가 풀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대선 개표 과정의 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모임인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은 이날 수 개표 방식의 재검표를 요구하는 국회청원서를 제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매투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투자 가능
▶투자대비 고수익 보장
NPL투자
▶낙찰받을 확률 100%
▶양도소득세 無
▶소액투자 가능
▶단기내 투자금 회수
★특수비법 배우실 분 상담★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ASSET KOREA since 200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상담전화 정현로이사 010-5879-0005
☞ 물류센터 [전북김제] ☜ 대8076㎡ ,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6억 5천
☞ 근린시설[수기동] ☜ 대197㎡ , 건722㎡ 감정가 14억 최저가 5억 7천
☞ 주유소 [나주남평] ☜ 대4428㎡ , 건55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5억4천
☞ 신안압해 [횟집,판매] ☜ 대4706㎡ ,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8억
☞ 원룸[계림동] ☜ 대333㎡ , 건803㎡ 감정가 6억7천 최저가 3억7천
☞ 상가[신창동] ☜ 대 67㎡ , 건 134㎡ 감정가 2억5천 최저가 1억1천
☞ 공장 [나주공산] ☜ 대29710㎡ , 건1826㎡ 감정가 17억 최저가 8억
☞ 숙박시설 [치평동] ☜ 대704㎡ ,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 공장 [장성동화] ☜ 대1983㎡ , 건2320㎡ 감정가 7억 최저가 3억 9천
☞ 임야 [전주완산] ☜ 대지 20975㎡ 감정가 3억3천 최저가 1억3천

상담전화 김 종 원 이사 010-8227-7759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1506평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최저가 25억5천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3289평 ▷건물1601평 ▷감정가 52억4천 ▷최저가 36억7천
☞ 운암동 (근린시설) ☜ ▷대지 352평 ▷건물 1047평 ▷감정가 39억5천 ▷최저가 27억7천
☞ 화정동[예식장] ☜ ▷대지330평 ▷건물1016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1억(협의후결정) 요양병원적합
☞ 첨단 (오피스텔) ☜ ▷대지154평 ▷건물389평 ▷감정가 13억5천 ▷최저가 10억8천 수익률 최고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31일open 예정인 (주)솔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십니다.
* 찬모(여)2명,설겆이(여)1명,홀서빙6명,매니저(남,여)2명,매점(여)1명,경리(여)1명,영업부(남,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퇴직금,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풍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